

## 기금(지원금)에 대한 업자의 넋두리

조재홍

이 일이 직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시작은 작가였고 어느샌가 전시장 운영자 였다가 전시 설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면 항상 뭐라고 대답할지 아직도 고민이 된다. 회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학부생 때부터 액자나 캔버스를 벽에 거는 일은 익숙했다. 막걸리 한 잔에 선배들의 전시 설치를 도와주려 인사동으로 향하곤 했다. 당시에는 작품을 운송해주는 업체는 혼했지만, 전시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운송/설치 회사라는 것이 생겼다.

2016년부터 약 4년간 홍대 앞에서 작은 전시장을 운영했었다. 종종 기금 지원에 선정된 작가들이 전시를 할 때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거기서 보수를 받고 작품을 설치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셈이다.

전시장을 만들 때 처음으로 목공 공사를 해봤다. 가벽을 치고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 조명 기구를 달았다. 직접 전시장 공사를 했다는 말에 나를 폐 경력이 있는 목수라고 착각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의뢰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2020년, 코로나로 모든 것이 움츠러들었을 때 연희동으로 전시장을 옮겼다. 그리고 다시 4년간 운영했던 전시장을 재작년에 접었다. 전시장을 운영한 경험은 전시를 만드는 과정을 몸에 익게 해 주었다.

언젠가부터 전시 예산 편성에 공간 디자인, 설치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화이트 큐브에 그림을 거는 설치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어느새 그림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거나 공중에 매달거나 아니면 새로운 벽을 만들어 그림을 거는 등 뭔가의 변주를 주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아졌고, 그런 식으로 전시 경향이 변화했다. 작품을 거는 용도가 아니더라도 벽을 세워 공간을 나누고 동선을 만드는 전시가 늘어났다. 조각, 설치, 미디어 작품 또 한 마찬가지다.

전시를 보고 난 후 작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간 설치와의 조화에 대해 평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자연스레 각각의 작품뿐만 아니라 전시 공간, 감각의 경험 등 모든 것을

포함한 전시 그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고자 하는 작가들도 늘었다. 무엇이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언젠가 이런 경향을 기금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주어진 기금은 공간 대관비, 기획비, 원고비, 운송비, 촬영비 등 쓸 곳이 너무 많다. 그런 와중에 공간을 조성하거나 구조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예산은 기금 없이는 부담되는 금액이다. 종종 사비를 모아서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게 일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금을 받은 작가들이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나한테 많은 일이 들어오면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금을 받지 못해서 전시를 미루거나 걱정하는 작가들을 보면, 앞에서 말한 경향이 작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기금에 의지하는 부분은 공간 조성이나 설치에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가장 큰 비용 부담은 공간 대관비일 텐데, 이 부분에서도 앞서 말한 경향이 적용되는 것 같다. 오래된 집을 개조하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전시 장소로 바꾼, 그래서 일반적인 화이트 큐브의 전시장과는 결이 다른 그런 전시장을 대관하는 경향이 그렇다. 장소의 아우라를 기대하는 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공간을 대관하고, 아니면 차라리 공간을 새로 조성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싶다.

기금을 통해 누군가 예산을 확보해 오고, 그로 인해 작품의 스케일이 커지거나 예 공간에 손을 대게 되어 설치‘업자’를 찾는 일이 많아지면, 나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어쩐지 가끔은 입맛이 쓰다.

전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작가와 함께 이런저런 즐거운 상상을 하며 준비를 했는데, 막상 기금을 받지 못하면서 그대로 전시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작가뿐만 아니라 나도 어느샌가 기금에 기대고 있었나? 작가 활동을 잠시 접어 둘 때 들었던, 이제는 기금을 안 써도 되겠다는 흘가분함은, 전시장을 운영하며 ‘공간 기금’이라는 부담감으로 바뀌었고, 전시장을 그만두며 다시 흘가분해진 마음은... 이제 다시 새로운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 단지 전시 설치, 공간 조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작가 A가 나무 혹은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을 원한다. 그것은 작품 설치를 위한 구조물이기도 하고, 혹은 작품의 일부이기도 하다. (요즘 이런 구조물의 요청은 회화 작가든 입체 작가든 상관없이 자주 있다.)

#### A의 사례 1.

이제 제품을 팔아야 할 시간이다. 익숙지 않거나 혹은 이미 익숙해진 을지로, 문래동 거리를 돌아다닌다. 어떤 아저씨는 귀찮아 하고 누구는 불친절하다. 그래도 작품을 위해 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러다가 기금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테크니션을 한 명 소개를 받는다. 이 사람은 작가 출신이라 그런지 내가 원하

는 것을 잘 이해한다. 부분부분 “작가적인” 제안도 들어온다. 작품이 좀 더 완성도를 가지게 된다. 결국,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다. 기금을 못 탔으면 불가능했거나, 혹은 아주 힘들게 작품을 해야 했을 것이다.

#### A의 사례 2.

기금을 받지 못했다. 결국, 모두 직접 해야 한다. 알고 지내던 다른 작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지만, 직접적인 기술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작업을 위한 돈을 벌어야 한다. 안 그래도 모자란 시간이 더욱 버겁다. 개인전을 한 지, 2년이 넘어간다. 재료비도 벌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전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금이 없던 시절에는 다들 어떻게 작품을 만들고 전시도 했는지 모르겠다. 막연하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던 선배들이 기억이 난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예술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

조재홍은 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작품활동을 하다가 ‘아트랩반’이라는 전시공간을 운영했다. 이후 인테리어 목수, 전시 설치 일을 소소하게 하다가, 공간디자인, 작품 제작, 테크니션 등 미술 주변부의 이런저런 일을 하는 업자로 살고 있다.